



地圖資料의 分類 및 標目選擇에 관한 考察

車 惠 仁
慶北大學院圖書館·情報學科

序 言

地圖의 製作은 거의 人類의 歷史와 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地圖의 發達은 모든 變化의 總체적 產物이라 일컫을 수가 있다.

文獻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이와 같이 일찍부터 發達한 地圖資料를 위한 地圖圖書館이 1805년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¹⁾ 1835년에는 하바드大學 圖書館에서 地圖資料의 目錄을 했다고 나타나고 있다.²⁾ 그러나 이와 같이 오랜 歷史를 가지고 있는 地圖資料의 整理에 있어서도 다른 非圖書資料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問題點이 대두되고 있다.

地圖는 “地球表面의 一部 또는 全部를 일정한 縮尺에 의하여 平面上에 묘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좁은 意味의 地圖로서 地表를 비롯한 大氣圈內의 現象을 나타내는 氣象圖, 地下의 상태를 表示하는 地質圖도 地圖의 一種이라 할 수 있고 또 항공사진(공중사진)도 地圖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엄격한 意味에서는 地圖라고는 할 수 없지만 地球儀나 地圖模型 및 地球 以外 다른 天體에 관한 資料등도 圖書館에서는 모두 일괄하여 地圖類 또는 地圖資料로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地圖資料는 視覺資料로서의 重要性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더 內容과 形態面에서 多樣性을 띠고 있으며 學習資料로서의 需要와 利用은 이에 비례하여 급격히 상승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地圖資料를 保存하는 모든 圖書館은 종래 단순한 부속자료로서 취급한 方法에서 탈피하며 整理體系를 確立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에따라 여기에서는 먼저 地圖資料의 개략적인 歷史와 그 種類에 관하여 살펴 보고, 整理上의 問題중 그 論爭點이 되고 있는 分類 및 標目選擇에 관하여 既存 文獻 및 論文들을 바탕으로 諸見解들을 비교 검토하

여 地圖資料의 整理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一. 地圖資料의 特性 및 種類

1. 地圖資料의 史的 概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地圖의 製作은 人類의 歷史와 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古代文明이 發達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비록 유치했지만 매우 實用的인 目的으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역범위를 表示하였는데 그 예로는 이집트의 누비아금광지도, 바빌로니아의 世界地圖를 들 수 있다. 물론 이때는 종이가 發達되지 않았던 관계로 점토판, 나무줄기, 조개류등의 媒介가 使用되었다.³⁾ 이밖에도 에스키모, 아메리카 인디언들에 의하여 作成된 原始圖는 후에 유럽의 탐험가들에 의하여도 利用될 수 있을만큼 그나름대로 發達되었다.⁴⁾ 그리이스 로마時代에 들어와서는 여러 學問의 發達과 보조를 맞추어 地球에 대한 知識의 進歩가 현저하여졌고 이에 따라 地圖의 製作도 점차 發達하여 개선되었다. 그 代表的인 예를 들어보면 BC580년 경에는 아나키시만데르스의 世界地圖가 作成되었고, BC 320년에는 디카이아르크스에 의하여 처음으로 經緯線을 구비한 地圖가 나타났다. 로마時代에 들어와서는 알렉산드리아의 地理學者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하여 오늘날의 본노圖法의 經緯線에 가까운 進歩된 世界地圖가 作成되었으나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地圖作成을 終점으로 이후 中世에 들어가서부터는 거의 發達이 중지되었다.⁵⁾ 그후 문예부흥운동에 따라 地理上의 大發見,

1) Mary Larsgaard, *Map Librarianship*-Littleton: Libraries Unlimited, 1978, p.55

2) 上掲書, p.90

3) 原色世界大百科事典, 서울:學園社, 1975, p.470

4) 李智皓, 洪始煥, 地圖의 研究. 서울:乙酉文化社, 1955, p.40~45,

5) 原色世界大百科事典 p.470.

6) 織田武雄, 地圖의 歷史. 東京:講談社, 1973, pp.23~44

科學上の 發見 및 發明들은 地圖의 發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즉 15世紀初에서 16世紀에 걸쳐 經綫, 위선술을 基本으로 하는 투영법에 의한 여러 종류의 地圖가 고안 作成됨으로서 近代地圖學이 發達하게 되었으며 또한 측량기계의 發達 製圖法의 進步 및 印刷術의 비약적인 發展은 더욱 정밀하고 우수한 地圖를 製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⁷⁾ 이때에 여러 學者들에 의하여 各種各樣의 圖法이 創案되었으며 특히 1569년에는 오늘날 까지도 일반적으로 널리 使用되는 메르카도르圖法에 의한 世界地圖가 作成되었다.⁸⁾ 그 후 地圖의 作成은 더욱더 科學的으로 되어 18世紀末에는 북극 남극지역을 제외하고는 世界의 大部分이 직접 답사에 의하여 아주 정밀하게 나타내게 되었으며, 또한 1781년에는 有名한 본느圖法이 發明되었다.⁹⁾ 이와 같이 發達한 地圖의 製作은 現代에 이르러 學術的 目的외에도 政治, 군사, 작전용 地圖의 目的으로 大縮尺에 의해 아주 정밀하게 科學的으로 作成되었으며, 1930年경에 나타난 항공사진지도는 地圖의 發達에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¹⁰⁾ 한편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地圖의 製作은 文獻에 기록된바로는 三國時代에는 이미 地圖를 使用했다고 하나 그 근원은 正確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李朝時代에 이르러 實測에 의한 地圖作成이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¹¹⁾ 특히 이조말엽에 製作된 靑丘圖(1834)와 大東輿地圖(1861)는 그 代表的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大東輿地圖는 金正浩가 製作한 것으로 縮尺(1/162,000) 地形 및 거리의 正確性, 各種 事物의 記入內容 등은 近代地形圖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正確하고 정밀한 것이었다. 近代의 科學的인 地圖는 20世紀初에 日本人에 의하여 作成되었는데 1/5만, 1/25만 地圖가 全國에 걸쳐 作成되었다. 現在는 항공사진측량에 의하여 科學的 이고도 現代的인 地圖가 과거의 것을 보완, 수정하여 刊行 出版되고 있다.¹²⁾

2. 地圖의 種類 및 特性

多樣한 地圖의 種類를 分類하는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觀點에서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目的에 따라 一般地圖와 特殊地圖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特殊地圖라 함은 도시계획도, 地質圖, 토양분포도, 교통지도, 정치지도, 경제지도, 관광안내도 등의 主題地圖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¹³⁾

둘째, 縮尺에 따라 大縮尺圖(1/10,000까지) 中縮尺圖(1/10,000~1/100,000) 小縮尺圖(1/100,000以下)로 大別할 수가 있다.¹⁴⁾

셋째, 形態에 따라 平面地圖, 立體地圖 地球儀 그리고 地圖帖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平面地圖는 다시

全國 折圖 掛圖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¹⁵⁾

넷째, 投影法에 의해 分類해 볼 수가 있는데 보통 투시 圖法에 의해 作成된 地圖, 展開圖法에 의한 것, 이 두가지의 混用圖法에 의한 것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¹⁶⁾

다섯째, 製作方法에 의한 區分으로 실지 측량에 의한 實測圖와 이것을 기초로하여 編纂한 編纂圖가 있다. 실측도에는 地形測量에 의하여 作成된 地形圖와 토목 形地圖와 같이 略測量에 의한 略測量圖가 있으며, 編纂圖에는 지세도, 地方圖와 같이 實測地圖를 토대로 하여 記錄·統計·실지조사·文獻調査 등의 사실들을 記入한 일반편찬도와 特定한 事象을 目的으로 한 特殊編纂圖가 있다.

여섯째, 地域別로 區分하면 世界圖, 大陸圖, 나라別 地圖, 地方圖등과 같이 地球의 全體 혹은 한나라, 한 지방을 한장의 지도에 나타낸 것을 뜻한다.¹⁷⁾

이상과 같이 여러가지 形態로 地圖를 나누어 볼 수 있지만 그 외에도 年度別, 色別등에 의하여도 地圖를 區分할 수가 있다.

그러나 地圖專門機關과는 區別하여 一般圖書館에서는 地圖를 이와 같이 細分할 必要는 없다. 圖書館資料로서 地圖를 고려하게 될 때 問題가 되는 것은 대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첫째, 內容面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될 것은 포함된 地圖, 취급된 主題, 表現하고 있는 縮尺등이며,

둘째, 形態面에 있어서는 1枚로 된것, 地圖帖, 立體 地圖의 區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셋째, 資料의 取扱面에 있어서는 古地圖로서 貴重資料로 취급할 것이나 하는 것등을 고려하여야 한다.¹⁸⁾

二. 地圖資料의 分類에 관한 考察

地圖를 分類하고자 하는 가장 明白한 理由는 主題 또는 形態에 따른 어떤 범주내에서 體系의으로 배열함으로써 檢索 및 利用을 손쉽게 하여 利用者 및 司書의

7) 原色世界大百科事典, p.470.

8) 織田武雄, 前掲書, p.69.

9) 上掲書, p.61

10) 上掲書, pp.62~63

11) 上掲書, p.64

12) 原色世界大百科事典, p.470

13) 上掲書, p.473

14) 日本圖書蝕協會 資料組織化編集委員會 編, 資料組織化 便覽·東京:同協會, 1975, p.197

15) 李智皓, 洪始煥, 前掲書, pp.16~17

16) 上掲書, p.19

17) 金益達編, 前掲書, p.474

18) 日本圖書蝕協會, 資料組織化編集委員會 編, 前掲書, p.197,

혼란을 줄이고 시간을節約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地圖의分類體系는 가능한한 광범위하고多樣한地圖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하며經濟성과 효율성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論理的이고도 쉽게理解할 수 있는 배열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¹⁹⁾

非圖書資料의 경우에 있어서 書架上的 分類를 해 줄 것인가 아니면 物理的 特性에 따라 書誌上的 分類만 하고 書架上에는 固定式 배열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하여는 오래전 부터 學者들 간의 論爭點이 되어왔다.²⁰⁾

地圖資料의 경우도 例外는 아니라 하겠다. 즉, 地域的 區分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非地域的 區分 즉 主題, 受入順, 年代順, 形態別 또는 起源이나 出處 등에 의한 分類를 해 줄 것인가에 대하여는 다른 非圖書資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많은 논단의 대상이 되어 왔다.

固定式 배가를 위한 書誌分類를 하고자 하는 代表的인 몇몇 見解들을 살펴보면 Akers,²¹⁾ Carl T Cox,²²⁾ 日本의 川口鐵男²³⁾ 등은 資料의 形態上的 特성과 貸出의 不可否의 理由를 들어 地圖의 別置記號 M 또는 MA 아래 모든 地圖를 受入順으로 배열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Ehrenberg는 만약 地圖資料를 크기順에 의하여 배열한다면 스페이스面에서 약 30% 정도는 효율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또 지형도나 아주 大型의 地圖 등을 일정한 규격으로 된 地圖케이스의 규격에 맞추기 위하여 여러번 접거나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며, 또 아주 소형의 地圖라도 빠트릴 염려가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²⁴⁾

또 Bibliothèque National in Paris에서는 地圖資料를 먼저 크기別로 다섯그룹으로 나눈 후 그 아래 受入順 번호를 붙일 것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Foncin은 이 分類體系야말로 資料의 觀點에서 보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하고 地圖는 원래 貸出을 目的으로 하지 않고 또 圖書와 비교하여 볼 때 취급상 많은 주의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方法이 要求된다고 하였다.²⁵⁾

이와 같은 諸見解와 반대로 書架分類를 主張하는 見解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南承冕氏는 地圖를 標題에 의하여 分類할 것을 主張하였는데 즉 이는 地理的 區分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標題에 地名이 記載되어 있는 것은 처리가 용이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그는 구체적인 分類方法으로 KDC에 의한 方法과 別置記號를 사용한 分類方法을 제시하고 KDC에 의한 分類는 學校圖書館에서는 有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別置記號 MA아래 地域區分, 主題區分을 해주

그 아래 細目區分은 KDC의 地理區分을 따르는 方案을 역시 提示하고 있다.²⁶⁾

한편 資料組織化便覽에 의하면 KDC를 使用하여 圖書와 同一한 整理를 行할 경우에는 一般地圖나 地圖帖은 地域에 따라 分類할 것을 明示하고 있으며, 別置記號를 使用하는 경우에는 別置記號아래 地理區分을 하고, 필요에 따라 主題區分할 것을 明示하고 있다.²⁷⁾

또 Larsgaard는 利用者의 要求에 호응하기 위하여 그리고 多樣한 모든 규모의 컬렉션을 만족시키기 위하여는 地域에 의하여 分類를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必要에 따라서 그 아래 主題區分을 해 줄 것을 주장하고, 여러가지 既存 分類表 및 地圖資料를 위한 專門分類表의 使用方法을 提示하고 있다.²⁸⁾ Larsgaard는 地圖資料의 地域分類를 위한 方法을 알파벳順(標題順을 뜻함) 알파벳과 숫자의 혼합順, 숫자順으로 나누었는데, 즉 여기에서 알파벳順이라 함은 기존 分類體系에 의한 것이 아니라 地域名을 그대로 혹은 略語로 써서 알파벳順에 의해 배열하는 方法인데, 즉 標題에 나타난 地域名에 의한 分類라 할 수 있다. 또 알파벳과 숫자의 혼합順이라 함은 가장 일반적인 方法으로서 DDC, LC 및 地圖專門分類法인 Boggs와 Lewis의 分類表와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Class System을 들 수가 있다. Larsgaard는 이 중에서도 특히 LC分類表, G類야말로 모든 圖書館의 地圖資料에 대해 가장 一般의이고도 훌륭한 方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단순히 숫자에 의해 배열하고 있는 分類表의 代表로는 UDC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은 各種 分類體系를 利用하여 地圖를 分類한 例를 들어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 19) Mary Largarrrd, 前掲書, p.56
- 20) 孫正彪 "테이프錄音資料의 書架上的 分類와 標目選擇에 관한 考察" 도서관, 33卷 7號(1978.9), p.16
- 21) Susan Gley Akers, *Simple Library Cataloging*, 4th ed. Chicago: ALA, 1954 p.144
- 22) Carl T. Cox, "The Cataloging, of Nonbook Materials: Basic Guideline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15, No.4(fall, 1971) p.473
- 23) 川口鐵男, 資料組織化論 東京:精文社, 昭和52年(1977) p.169
- 24) Ralph E. Ehrevberg, "Non-Geographic Methods of Map Arrangement and Classification," *Drexel Library Quarterly*. Vol.9 No.4 pp.49-63(Dec. 1973)
- 25) Myriem Foncin, "Some Observation on the Organization of Large Map Library." *World Cartograph Vol.3* (1953) p.34(Mary Larsgaard, . . . , p.85)
- 26) 韓國圖書蝕協會 編, 非圖書資料의 整理 서울:同協會, 1968, p.132
- 27) 日本圖書蝕協會 資料組織化編集委員會 編, 前掲書, pp. 99-200
- (28) Mary Larsgaard, 前掲書, pp.56~84

지도 : Washington Division of Mines and Geology. Geological map of Washington. Olympia: 1961

Scale 1:500,000 single flat map

地域名에 의한 分類의 例 : WA(지역의 약어명) WASHINGTON(STATE) GEOLOGY(지역 주제)
 GEOL(주제) 1:500,000 1961 (축적 연대)
 1961 (연대)

KC: G4281(지역번호) DC: 912.155797(지역번호)

C 5 (주제코드) W317g(저자기호)

1961 (연대)

W 3 (저자기호)

AGS: 891 (지역번호) B&L: 697Lag(지역번호—주제번호)

B-1961(주제번호—연대) 1961Wg(연대—저자표시)

以上이와 같이 地圖의 分類에 관한 諸見解들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筆者의 見解로는 地圖資料를 固定配架를 위해 書誌分類를 해 줄 경우 몇가지 問題點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地圖資料는 參考資料로서 그 價値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利用者는 貸出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開架式으로 自由롭게 열람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단지 書誌의 分類에 의한 固定式配架로서는 利用者의 검색에 많은 不便을 주게 될 우려가 있다.

또 地圖資料는 그 學術的 教育的인 면에서 높은 重要性을 띠고 날로 그 資料의 양이 增加되고 있는 경향인데 이에 대해 단지 分類 및 파일作業의 단순화를 위하여 受入順이나 크기別 分類만을 고려하는 것은 利用者의 要求를 반영하지 못한 方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書架上的 分類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方法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書架上的 分類를 하는데 있어서도 몇가지 問題點이 야기될 수 있다 하겠다.

첫째, 地域的 區分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主題區分을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인데 Larsgaard에 의하면 地圖資料의 主題區分은 작은 地域에 이르기까지 아주 專門的으로 취급하고 있는 圖書館의 경우에 바람직하다고 하였다.²⁹⁾ 비록 圖書와 地圖에 있어 分類의 目的은 같다 하더라도 圖書의 分類는 主題를 基礎로 해야하고 그외의 特殊한 地域을 나타내하고자 할 때는 主題分類下에 地域分類를 해야 하는데 비해 地圖는 大部分의 경우 利用者의 가장 큰 관심은 어느 地域을 카바하고 있는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地域을 우선으로 分類하고 다른 特定主題는 地域의 分類아래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둘째 地域 또는 地理區分을 할때의 問題點인데, 즉 KDC, NDC, DDC, UDC, LC등의 기준분류표의 使用時 例를 들어 우리나라의 道나 市를 表示하고자 할 때

分類表로서 展開할 수 조차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實情에 맞게 展開하고자 해도 너무 길어지거나 복잡해질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問題點을 고려하여 地域的 分類를 우선으로 하는 書架上的 分類를 하되 圖書館의 규모나 藏書計劃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分類體系를 選擇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三. 地圖資料의 標目選擇에 관한 考察

地圖資料의 標目選擇에 있어 問題가 되고 있는 見解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地圖의 內容에 責任을 질 수 있는 著者나 團體를 標目으로 採擇하되 잘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地圖製作者, 製版者, 團體, 標題의 順으로 記入하고자 하는 見解,

(2) 地圖의 內容에 責任을 질 수 있는 著者나 團體에 關係없이 모든 資料에 대해 標題를 標目으로 하자는 見解,

(3) 모든 資料의 標目を 標題에 나타난 地域名으로 하자는 見解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서로 相反된 諸見解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LC記述目錄規則을 비롯하여 AACR,³⁰⁾ KCR,³¹⁾ NC R³²⁾에서는 著者나 團體를 標目으로 채택하여야 한다는 見解를 가지고 있는 反面에, ACET의 目錄規測³³⁾ W. B. Hicks와 A.M. Tillin³⁴⁾ 및 C.T. Cox³⁵⁾ 등은 標題

29) 上掲書, p.56

30) ALA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North American Text*(Chicago: ALA, 1967), p.211

31) 張一世, *韓國目錄規則解説* 서울: 韓國圖書敎協會, 1968, p.117

32) 日本圖書敎協會, 資料組織編集委員會 編, 前掲書 p.200

33)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Standards for Cataloging Non-Print Materials*, 3rd ed. Washington: AECT, 1972, p.31

34) W.B. Hicks and A.B. Tillin, *Developing Multir-Me-*

(1) 著者, 團體를 標目으로 하는 경우

Call no	Author Title. Place of publication, Publisher, Date.
	Color. Map. Size.
	Scale Notes

(AACR)

를 標目으로 選擇해야 한다는 見解를 가지고 있다. 한편 J.R. Weighs에 의하면 標題標目과 地域名에 의한 두가지 方法 모두를 採擇하고 있으며,³⁵⁾ Samuel W. Boggs와 Dorothy sCornwell Lewis,³⁷⁾ Special Libraries Asociation의 SLAG & MD³⁸⁾ 그리고 Roman

Draziowsky³⁹⁾ 등은 地域名 아래 分類할 것을 主張하고 있다 이와 같은 諸見解와 그 標目內容 및 記述方法에 대하여 더욱 명확히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 각 團體나 著者가 제시하고 있는 目錄形態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iaLibraries(New York: Bowker, 1970), p.138

35) Carl T. Cox, 前掲論文, p.472

36) f.Riddel Weighs, Lewis and Janet Maedonald, Nonbook Materials (Ottawa: Conadian Library Association, (1973) p.49 pp.97~98

37) Samuel W. Boggs, Dorothy Cornwell Lewis, *The Classification and Cataloging of mbos and Atlases* (New York: AGS, 1969)

(Bohdan S. Wynar, *Introduktion to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p.201

38) Mary Larsgaard, 前掲書, p.109

39) Roman Draziowsky, *Cataloging and Filin^s Rules for Maps and Aflases in the Soirety's Collection*, rev. ed. (New York: 1969)

(2) 標題를 標目으로 하는 경우

Title(Map) Edition. Publisher. Date.
Color. Size. Scale Projection Other notes

(AECT)

Call no	Title. Map. publisher, Date. Size, Color, Scale.
	Format Projection Other notes

(Hicks, Developing Multi-Media Libraries)

(3) Weighs가 제시한 양자택일의 경우

Call no. Title (Map)
Edition. Producer or manufacturer, date.
Number of sheets. Color. Size.
Scale.
Prime meridian.
Projection.
Other notes.

Call no. [Area, Date]
Title. Producer or manufacturer, date.
Number of sheet. Color. Size.
Sacle
Prime meridian
Projection
Other notes

(Weighs, Nonbook Materials)

(4) 지역명을 표목으로 하는 경우

Call no. Area, subject, date.
Title; author. Edition. Place, publisher, date.
Scale. Number of sheets, measurements.
Projection. Prime meridian. Series note.
Notes.
Tracing.

Boggs & Lewis Format

Map class. Area. Date. Subject. Scale. Size.
no. Authority.
Title. Place of publication, publisher if other than authority, date of publication.
Notes.
Tracing.

SLA, Geography and Map Division, Committee on Map Cataloging

Area, date. Call no.
Title.
Scale.
Projection, if indicated.
Author &/or publisher.
Place of publication, date.
Size.
Notes.

以上과 같은 諸見解에 대해 地圖資料의 경우에 있어서는 一般圖書나 기타 시청각자료와는 다른 標目選擇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地圖와 圖書에 있어 根本적으로 다른 점은 地圖의 가장 우선적인 확인은 앞서서도 밝힌바와 같이 著者에 의해서 보다는 地域에 의해서라는 점이다. 또 거의 모든 地圖資料는 個人的인 著者를 가지는 경우보다는 組織이나 團體의 協力으로 出版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AACR의 著者標目原則을 따를 경우 大部分 標目이 出版社로 나타나고 있어 그 결과로서 同一標目の 카드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 매우 有用하지 못한 카드目錄을 초래할 可能性이 높다 하겠다.

또한 標題標目原則의 경우도 만약 分明한 標題를 채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꽤 有用하다고 할 수 있으나 地圖의 標題는 圖書보다도 더 애매모호하고 不完全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理由를 들어 大規模의 地圖資料를 취급하는 地圖專門司書들은 대부분 地域名을 標目으로 할 것을 主張하고 있는데 筆者의 見解로는 一般圖書館에 있어서도 가장 바람직한 方法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問題는 야기될 수 있는데 즉 地域名의 統一問題등과 같은 것이다. 이런 때에는 Boggr & Lewis, 같이 專門的인 主題標目表를 만들어 使用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포괄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J.R. Weighs著 "Nonbook Materials"에서 提示하고 있는 몇몇 書誌資料를 利用하는 것도 有用한 方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아주 작은 規模의 圖書館일 경우에는 LC와 Sears의 主題名標目表 혹은 Webster의 Geographical Dictionary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以上과 같이 地圖資料의 分類 및 標目選擇에 關하여 개략적으로 살펴 보았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역시 諸學者들 간에 見解差를 보이고 있는 記述目錄上의 問題에 關하여는 전혀 言及하지 않았는데 이에 關한 보다 구체적인 研究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結 論

지금까지 地圖資料의 分類와 標目選擇에 關하여 諸見解들을 살피고 검토한 바 筆者의 見解를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地圖資料의 分類는 圖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利用 및 검색의 편의를 고려하여 書架上의 分類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 地圖資料의 경우는 利用者의 관심이 주로 어느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분아래 主題區分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標目的 採擇問題에 있어서는 現在까지 本文에서 밝힌 3가지 方案이 모두 各各의 特性을 가지고 여러 圖書館에서 使用되고 있는데 利用者의 관심과 明確性, 검색의 便利등을 고려해 볼때 지역명 표목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地圖資料는 그 多樣한 種類나 취급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 整理나 管理가 가장 어려운 資料中の 하나라고 할수있다. 그러나 그 學術的, 教育的, 文化的 價値로 미루어 볼 때는 앞으로 많은 資料上의 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各 圖書館에서는 자기도서관의 目的과 實情에 맞게 그리고 앞으로의 자료증가추세를 고려하여 보다 合理的이고 體系의인 分類體系와 目錄規則을 採擇하여 資料를 組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李承晚博士의 對美關係 고문이었다던
Oliver 博士가 自述한 英文 회고록
드디어
韓國에서 發刊됩니다!

Syngman Rhee and
American Involvement
in Korea, 1942-1960

A Personal Narrative

ROBERT T. OLIVER

定 價 US\$ 16.50 / Won 8,000

發行
總版 株式会社 汎文社 72 · 5131 / 3